

월급 줄 돈 아끼려...전남 자영업 87% '나홀로 사장'

지난달 전남 25만4000명 '전국 최고 비율'...광주 69.5%
광주·전남 자영업 44만4000명...전년동기비 5.7% 늘어
무급가족종사 14개월째 증가...코로나 속 고용조정 지속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에 지역 자영업자 증가 추세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임금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1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자영업자 수는 광주 15만 1000명·전남 29만3000명 등 44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2만명)보다 5.7%(2만4000명) 증가했다.

광주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000명, 전남은 2만2000명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보험을 나타낸 지난해 7월을 제외하고 1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전남 자영업자는 1만명 증가하고 7월 보합을 나타낸 뒤 12개월 연속 전년보다 증가해왔다. 올해 2월에는 자영업자가 광주 1만4000명·전남 2만8000명 등 4만2000명 증가하며 이 기간 동안 관련 통계를 낸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했다. 자영업자의 증가는 통계에 반영되며 취업자 수를 늘리고 있지만, 경기충격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도 병행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광주 전남과 같았지만, 전남에서는 3000명이 줄었다. 반면 광주·전남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개월 연속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광주가 전년보다 2000명 늘어난 10만5000명, 전남은 2만5000명 증가한 25만4000명 등 35만9000명을 기록했다. 전남지역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2017년 9월(25만7000명)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남은 '나 홀로 사장'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난달 전남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비율은 86.7%(29만3000명 중 25만4000명)에 달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북(86.4%), 충북(85.1%), 경북(85.0%), 충남(82.4%), 경남(80.5%), 인천(78.3%), 강원(78.1%), 세종(76.7%)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비율(76.4%)을 밑도는 지역은 대구(66.3%)와 광주(69.5%), 서울(69.9%), 대전(70.1%), 경기(73.2%), 부산(74.2%), 제주(75.0%), 울산(75.8%) 등이었다.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고용원에 대한 구조조정 공백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대체되고 있다. 광주·전남 무급가족종사자는 지난해 4월(6000명 ↑) 이후 14개월째 증가 추세다.

광주·전남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6개월 연속 오르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를 넘어 지속되면서 자영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오상일 차장 등이 지난 8일 펴낸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은 코로나 이후 택배 및 배달수요 확대로 택배기사나 플랫폼 배달라이더가 증가한 데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화 확산, 플랫폼 경제의 부상 등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할텐데 이들 영세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피해 채무자 '숨통' 원금 상환유예 신청 재연장

6~12개월 상환 연기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감소를 겪은 개인 채무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최소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 기한이 이달 30일까지로 연장됐는데 이번에도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지원은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때에 적용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임금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퀴드림론·안전장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된다. 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1인 132만원, 2인 224만원, 3인 290만원, 4인 356만원 등이다.

유예 기간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하며 지원에 따른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은 금지된다.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의 과잉 추심과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매입 대상 채권 범위(6월30일까지 연체 채권→12월31일까지 연체 채권)도 확대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무료 건강 예방 서비스 사학연금 오늘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14일부터 사학연금 나주 본사와 서울·대전·부산센터의 상담실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 예방 서비스'는 연금 고객 뿐만 아니라 공단 방문객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나주 본사와 센터 3곳에 마련된 연금업무 상담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혈압계와 스트레스·혈관노화도 측정을 위한 진단기가 설치돼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현재 스트레스 상태와 혈관나이 등은 물론 최종 건강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센터에서는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인 '아이스캔'이 시범 운영된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연금 고객의 심신 회복을 위한 '마인드 클리닉'도 진행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건강 서비스는 매년 실시되는 고객만족도 조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 거리두기, 발열체크, 방역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공기·가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고용안정 본격화

광산업진흥회, 7월부터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오는 7월부터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통해 공기·가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내 일자리 안정과 고용창출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약화된 광주 지역 경제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광주시와 북구, 광산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이다. 진흥회는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 중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공기산업 분야 기술·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중소기업 등에 올해 80여명(기술전문가 70명, 마케팅전문가 10명)을 시작으로 5년간 600여명의 전문인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진흥회는 사무국 내부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사무국과 교육장을 설치한다. 또 지역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강사진 구성과 실습 위주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교육은 공기·가전분야 핵심 기술인 공기·가전 감지기술(온·습도 모니터링), 정화기술(탈취, 제습, 에너지 제어 등), 스마트 제어기술, PCB 설계 및 디자인 모델링 등 실습위주 구성됐다. 이밖에 영상제작을 비롯해 소셜마케팅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과정도 준비했다. 또 시제품 및 고급화 제작지원부터 제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제작, 제품 카탈로그 제작, O2O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지역 32개사에 기업당 1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좋은 일자리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영광군에 장학기금 영광은행(은행장 송종욱·오른쪽)은 최근 영광군(군수 김준성)을 찾아 인재육성기금을 전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장학금 3000만원을 영광군에 전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로도복권 (제96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6	13	37	38	40	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5,809,776,094	4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6,133,103	69			
3	5개 숫자일치	1,564,923	2,475			
4	4개 숫자일치	50,000	121,200			
5	3개 숫자일치	5,000	2,042,462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